

8월 24일 성 바르톨 로메오 축일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2019-8-29

요한의 복음. 1,45-51

그때에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묵상

우리는 필립보의 친구인 나타나엘, 혹은 후에 알려진 것처럼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르톨로메오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수 님께서는 그에게는 “잔꾀”가 없고 속임수가 없다고 커다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직진하는 성격, 솔직함, 열린 성격, 천상의 것을 추구하는 성격, 평坦하게 말하는 성격, 정직함, 겉을 꾸미지 않는 성격을 올바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나타나엘은 메시아께서 나자렛에서 나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에 어려워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 본 후 그는 명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덕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덕들은 초자연적

인 덕을 쌓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은총은 덕의 꼭대기에 놓입니다. 은총은 인간적인 덕들이 없다면 그 어디에도 놓이지 않습니다. “위대한 성인들은 종종 위대한 죄인들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소심한 겁쟁이 중에 위대한 성인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라고 철학 교수인 피터 크리프트가 말한 것처럼, 성인들도 잘못을 저질렀겠지만, 그들은 덕 역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르수스의 사울은 질투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겁쟁이가 아니었으며 미지근한 유다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향한 열의와 성실함, 용기가 있었습니다...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자 마자 그의 길을 전환할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인들은 진리를 따릅니다. 비록 그 방법들이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을 복잡하게 할지라도 진리를 따릅니다.

베드로의 충성심, 야고보와 요한의 대담함, 아브라함의 순명, 모세의 확고함, 아씨시의 프란치스코의 하느님에 대한 집착, 요한 마리아 비안네의 겸손...나타나엘의 정직함에 의존하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복음화를 위한 위대한 도구로 변화된 사울의 열정에 '의존'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은총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덕에도 의존하십니다.

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여, 당신께서는 모든 덕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께로부터 이 덕들을 배워서, 하느님께서 덕으로 이루어진 저의 삶 위에 그분의 은총을 놓을 수 있게 해주소서.

I pray 번역 원문 : George Boronat
신부

번역 : 정 대영 요셉

pdf |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from [https://opusdei.org/ko-kr/article/
8weol-24il-seong-bareutolromeo-cugil/](https://opusdei.org/ko-kr/article/8weol-24il-seong-bareutolromeo-cugil/)
(2026-1-29)